

# 도시재생·도시문제 해결 새 패러다임 제시



대한민국공간문화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광주폴리 III' 중 산수동 한옥을 개조한 '국폴리'.

##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대통령상 수상한 '광주폴리 III'

### 뷰·국·GD폴리 등 5개... '커미셔너제 도입 완성도 높여' 내달 2일부터 열리는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에도 참여 박흥근 건축사 큐레이터 말아 판넬 전시·폴리 영상 상영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대부분의 건물 이 지하에 있어 전체 모습을 조망하기 어렵다. 최근 설치된 '광주폴리 III' 프로젝트의 '뷰 폴리'는 전당을 내려다보고 멀리 무등산까지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 역할을 한다. 구도심에 자리한 '국폴리'는 유명 셰프와 지역 청년들이 결합해 운영하는 식당과 카페로 신선함을 줬다.

'광주폴리 III(도시의 일상성-맛과 멋)'이 '2017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 또 '광주폴리' 전체 시리즈가 올해 처음 열리는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에 소개되는 등 '광주폴리'가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시와 광주비엔날레 재단은 지난 2011년부터 '광주 폴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대통령상을 수상한 '광주폴리 III'은 '맛과 멋'이라는 일상적 체험 요소를 통해 도시를 경험하게 만드는 폴리로 천의용 교수가 총감독을 맡아 모두 5개(작품 11개)를 설치했다.

광주 정신을 표현하는 'CHANGE'가 새겨진 '뷰 폴리'(문헌 건축가·독일 안 에틀러·팀 에틀러)는 가로 20m 세로 5m 규모의 작품으로 광주영상박물관 옥상에 설치됐다. 심사위원들은 전망대 무등산 등을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 역할을 하고, 활용도가 저조한 광주영상박물관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외부계단을 도입한 점 등을 높이 평가했다.

'국 폴리'는 경리단길을 명소로 만든 장진우 셰프가 참여해 산수동 빈 한옥을 리모델링, 한식 레스토랑 '청미장'과 카페 '공집'으로 변모시킨 작품이다. 도시 재생과 청년실업 등 사회 문제를 '식당'이라는 컨셉으로 풀어내 해결책을 제안한 폴리로 장 셰프에게 교육을 받은 청년들이 '맛있는 골목 협동조합'을 설립해 운영한다.

그밖에 네덜란드와 공동 제작한 'GD폴리' 중 '꿈 집'은 지금은 사라진 박공 형태 건물을 응용한 작품으로 521개 청동판과 399개 티타늄으로 행복을 주는 집을 형상화했다. 또 총장로에 자리한 '뽀뽀폴리'는

'사랑방' 등 4개 작품으로 구성돼 있으며 서울역 공중보행길 설계자 위니마스가 참여하는 또 다른 GD폴리는 서석초 보행자 도로에 들어설 예정이다.

심사위원들은 "이번 수장작은 기존 폴리아이 도시 맥락이나 장소와 어울리지 않는 오브제 설치에 그쳐 공감대 형성에 미흡했던 점을 보완, 폴리가 도시 재생의 마중물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평했다.

특히 "광주비엔날레의 참여로 기존의 사업 발주 방식과는 다른 모델인 커미셔너 제도를 도입하고 자율권을 확대해 기획부터 제작까지 책임지고 수행한 게 완성도가 높은 결과물로 나타났다"는 점에 높은 점수를 줬다.

'광주폴리'는 올해 처음 열리는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에서도 선을 보인다. 서울시와 서울디자인재단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배형민 서울시립대 교수와 알레한드로 자에라 폴로 프린스턴대 교수가 공동감독을 맡아 9월2일부터 11월 5일

까지 동대문디자인 플라자 등에서 열린다.

'도시'와 '건축'을 화두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뉴욕, 런던, 상해 등 전 세계 50개 도시와 미 MIT, 영국 왕립예술학교 등 120개 기관, 1만 6000여명이 참여하는 대대적 행사다.

'광주폴리'는 주제전인 '아름답지 공유'전과 함께 메인 전시로 꼽히는 '도시전'에 참여한다. 공유를 통해 도시 문제 해결을 시도한 세계 도시들의 공공프로젝트를 보여주는 '도시전'에는 런던, 뉴욕, 도쿄 등 전 세계 50개 도시가 참가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광주폴리 프로젝트에도 참여한 박흥근 건축사가 지역 큐레이터를 맡아 '도시재생과 역사의 복원'을 주제로 진행된 '광주폴리 I', 인원과 공공공간이 주제였던 '광주 폴리 II', '광주 폴리 III'에 대해 소개한다. 박 건축가는 도시재생 차원에서 시작해 청년창업까지 이어진 '국폴리'에 주목해 전시를 기획했다.

전시에서는 상황에 따라 도시의 다른 위치로 이동이 가능한 라이프 한센의 미니폴리 '스펙트럼'을 선보인다. 또 광주 폴리의 의미 등을 담은 판넬을 전시하며 영상과 슬라이드 상영을 통해 광주 폴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박흥근 건축가는 "한방에서 혈자리에 침을 놓아 문제를 해결하듯 광주 폴리가 도시 생태계에서 그런 역할을 한다면 긍정적 요소들이 확대 재생산 될 것"이라며 "폴리가 새로운 도시 재생의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을 담아 전시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도시전'에는 그밖에 임대료 상승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가 내놓은 '공동주거지도', 평양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재현한 '평양전' 등도 만날 수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재경 조선대 동문그룹 '조미회' 기획전

### 29일까지 서울 인사동 G&J 광주·전남 갤러리

조선대학교 미술대학은 7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문화예술의 요람이다. 졸업생들은 각지에 흩어져 작품 활동을 하고 후학들을 양성하고 있다.

조선대학교 출신 재경 동문 그룹 '조미회' 기획전인 오는 29일까지 서울 인사동 G&J 광주·전남 갤러리에서 열린다.

올해 창립 28년을 맞는 '조미회'는 회원들의 다양한 작품 세계와 개성 있는 작품을 선보이는 기획전을 꾸준히 마련해 왔다.

이번 전시 주제는 '교감의 향(響)'이다. 한국 현대미술의 태동을 이끌며 현대미술의 진보를 앞당긴 선배들과 새로운 감각으로 무장한 후배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이번 전시는 같은 지역에서 공유한 감성을 바탕으로 마련한다.

전시에는 김기정, 김성식, 김영일, 김은숙, 김진희, 김하나, 김홍수, 박복규, 박순덕, 박영재, 박정기, 백동민, 서정민, 송 용, 신삼일, 심계효씨 등이 참여했다.



백동민 작 'My life'

한편 이번 전시에서는 '제1회 조미회 미술상(CS 미술상)'을 제정, 시상했다. 회원들의 창작활동을 격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으로 전시에 참여한 동문들이 전원 심사위원에 참여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첫 수상자는 이선희 작가다. 문의 02-2223-254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광주여성재단 30일 '지역여성사...' 워크숍

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염미봉)이 오는 30일 오후 2시부터 재단 8층 강의실에서 '지역여성사, 미래를 여는 여성의 삶'이라는 주제로 현안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역사 속 여성들의 주체적 삶이 담겨있는 기록들을 재조명하는 시간을 갖고, 향후 광주여성사 관련 자료 발굴 및 여성사 박물관 공간 조성(지역(오월 여성)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로드맵 구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 역사에서 배제되어왔던 여성의 역할과 삶을 재조명하는 부산(지역사회 미

래를 만드는 여성사), 대구(남일동 패물 폐지부인회 7부인 이름들 찾아서), 제주(제주여성사 구술 아카이브구축) 등의 사례에 대해 발표한다.

광주여성재단 강연자 사무총장이 좌장을 맡고, 정경은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장세라 광주전남여성재단 연합 공동대표, 이미옥 광주광역시회 회장(오월 여성)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로드맵 구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문의 062-670-0532. /\*전은재기자 e6j621@

## 광주문화재단 퍼블릭프로그램 '청소년 뮤지컬' 발표회

### 내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광주문화재단이 청소년(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연장상주단체운영사업 퍼블릭프로그램 '내 꿈을 향한 도전' 발표 공연이 오는 26일 오후 6시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에서 열린다.

최근 뮤지컬 인기에 힘입어 뮤지컬 제작 프로젝트에 청소년들의 호응도가 높은 가운데 30여 명이 가까운 학생들이 방학을 이용해 구슬땀을 흘리며 뮤지컬 세계로 빠져들었다.

'내 꿈을 향한 도전'은 '야빠, 베이비박스, 학교 밖 친구, 세월호' 네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그룹별 연출 강사와 함께

스토리텔링 및 작곡과정을 통해 뮤지컬을 완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뮤지컬에 필요한 춤, 노래, 연기 교육 지도를 받은 뒤 창작 뮤지컬 작곡·녹음을 완성하여 발표회(26일)를 갖고 이후 음반출시까지 계획하고 있다.

특히 이번 퍼블릭프로그램은 방학에 맞춰 청소년들과 함께 강사진들이 문화예술교육 눈높이에 맞는 각양각색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참여율과 호응도가 높았다.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은 작곡·보컬·연기 등으로 구성됐다. 강사진은 극단 유포씨어터 단원들이다. 문의 062-670-7943.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Shin Yang Park Hotel

**신양파크호텔 여름 패키지**

스탠다드룸 1박 + 조식 2인 + 사우나, 수영장 2인

₩110,000원 (세금포함)

객실예약 228-8000  
광주일보 제휴 패키지로 예약하시는 분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신양파크호텔과 함께하실 임대업장 사업주를 모십니다!

▶ 임대업장 : B1 노래방 / F2 한식당  
▶ 상담 및 문의 : 062) 221-4172 총무과  
\*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